



7면

군산전북대병원 2028년 개원 가시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음 3월 13일) 제396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찰칵’ ~ 완산공원 꽃동산에서 사진 한 컷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8일 전주시 완산공원 꽃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경선 마무리

임실군수 후보에 한득수 확정

‘돈봉투 의혹’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지시로 개표가 일시 보류됐던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결선 결과가 28일 발표되며 한득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임실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 개표 결과를 의결, 한득수 예비후보(사진)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앞서 당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결선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으로 인해 21일 개표를 전격 보류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결과 발표는 검찰 진행에 따라 연기됐으며,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판단을 통해 개표를 재



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논란의 발단은 결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며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로 인해 경선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고, 일부 후보 측에서는 경선 중단과 철저한 검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득수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은 자신의 캠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이번 임실의 경선 결과 확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작업은 모두 완료됐다. 다만 ‘돈봉투 의혹’에 대한 후속 조사와 책임 규명 여부는 향후 지역 정치권의 주안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숲의 진화’... 新 산림복지 시대 연다

도, 올해 총 286억 투입 치유·휴양·교육 결합 융복합 모델 구축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숲의 진화’를 통해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산림복지 시대를 연다. 도는 2026년 총 286억 원을 투입해 누구나 쉽게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치유·휴양·교육이 결합된 융복합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림은 전쟁 이후 황폐화됐으나 1970~80년대 치산녹화 정책을 통해 기적적으로 복원됐다. 이러한 성과는 2025년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산림정책 역시 보전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되며, 이제 숲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전북도는 1991년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산림 복지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단순 등산과 휴식 공간이었던 숲은 건강 회복과 정서 안정, 교육과 체험, 나아가 일과 여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변화했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정신건강 문제 확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누구나 쉽게 누리는 산림 복지를 정책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현재 전북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권과 산악지역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6년에는 △산림휴양·복지 207억원 △산림교육·체험 78억원 △산림 문화 3억원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치유와 예방’ 중심의 산림복지가 확대된다. 도내에는 진안고원산림치유원 등 국립·공립 치유의 숲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읍 이왕산과 전주 학산 일원에도 신규 치유의 숲이 조성되고 있다. 산림치유는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향상,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일상 속 건강관리 수단으로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연휴양림도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도내에는 현재 18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운영 중이며, 고창 구름골과 진안 군립 휴양림 등이 신규 조성되고 있다. 노후 휴양림은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편의를 높인다. 특히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에는 위케이션 시설이 들어서며, 산림이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생활권 산림 복지도 강화된다. 도내 산림유망장은 20개소, 숲길은 총 224km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숲길 걷기와 트레일러닝 등 산림을 활용한 관광과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다. 무주 덕유산 일대에서는 국제대회 유치도 추진 중이다.

체류형·체험형 산림 복지도 확대된다. 남원과 임실에는 숲속 아영장이 조성되고, 산악자전거 코스와 집라인 등 산림 레포츠 시설이 확충된다. 지역 축

제와 연계한 산림관광도 활성화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교육도 강화된다. 도내 유아숲체험원은 26개소가 운영 중이며,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문 인력도 2026년 48명으로 확대돼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산림 복지다지를 중심으로 한 거점화 전략을 추진한다. 진안 지역권 산림 복지다지를 비롯해 무주 향로산 순창 용평산 일대까지 연계해 산림 복지 지구를 확대하고, 관광·문화·농촌자원과 결합한 융복합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림복지에 이제 단순한 휴양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숲에서 일하고 쉬고 치유받는 삶을 실현해 누구나 쉽게 누리는 산림 복지서비스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시민이 만드는 하나의 정원

전주시, 내달 8~12일 '2026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기후위기 대응·정원산업 플랫폼 도시 대전환 선언

대한민국 정원산업 중심도시인 전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원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광장과 덕진공원 일원에서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6회째를 맞아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되는 올해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박람회로 도약하는 원년이자,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모델 구축을 통해 ‘정원도시 전주’라는 브랜드를 한층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는 ‘해비탕 전주 정원마당(부제: 시민이 만드는 하나의 정원)’을 주제로 전년 대비 행사 규모와 내용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행사 공간은 기존 월드컵광장에서 덕진공원까지 확대되며, 정원 조성은 기존 5개에서 45개로 대폭 늘어나 도시 전역이 하나의 정원으로 구현된다.

특히 전주정원산업박람회만이 가진 큰 차별점은 산업 중심의 박람회라는 점으로, 박람회 기간 월드컵광장에서는 국내 총 14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해 식물소재와 정원용품, 최신 조명 자재와 설비 기술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청년 참여를 위한 전시·홍보 기회도 확대된다. 무엇보다 박람회의 핵심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박람회로 기획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주 시 전역에는 총 35개의 시민참여 정원이 조성되며, 조정전문가와 초록정원사, 시민정원작가 등 지역 정원 인력과 협력해 주민이 설계부터 조성, 유지관리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권희성 기자

“다시, 사람이 하늘이다”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2026. 5. 9(토) ~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1일차 축하공연 5. 9(토) 18:00



손태진



조파즈



먼데이키즈



경서

2일차 축하공연 5. 10(일) 16:30



허각



신동재



김예슬



이유정

주최 정읍시 주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